시 론

교육은 백년지대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조 영 서
주월초등학교 교사

2024년 3월, 합계출산율 1.05명을 기록한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6년 뒤, 2030년 3월은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한 2023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을 약 2.1명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계획인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하는 교육에서는 학령인구수의 급격한 감소를 그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의 변화는 신중해야 하고, 또 결과에 대하여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분기 단위로 감소하는 출산율과 눈부시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및 기술의 발전은 교육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쉽사리 답을 내기 어려워지게 한다.

하지만 두 손 놓고 미래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교육으로만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에서 만큼은 인구 감소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한다. 학생이 사라지고 학교가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 환경과, 인류의 축복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지금의 추세라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어듦에 따라, 학생 1인에게 투입할 수 있는 교사의 시간은 늘어난다.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맞춤형 교육과정이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핵심 역량을 함양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의 각기 다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사가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과 수준을 제공하며 수업하기도 하고, 학생 개개인이 교육의 주체가 돼 스스로 학습계획을 설정하고 배우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방식이 실현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하는 것도 맞춤형 교육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특히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기초학력전담 교사와 기초학력 지원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및 교육 수요자 간의 협업도 필수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 교육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외국인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특화된 인력 및 유·무형의 설비를 지원받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러한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은 다행히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AI 에듀테크'로 대표되는 이러한 교육기술의 발전은 이미 교실에서 다양하게 실현중이다. 이미 국내외 업체들이 교육 관련 AI 플랫폼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사용 중일 뿐만 아니라, MS와 Google은 이미 교과과정 및 현장 교사들의 각기 다른 수요를 반영해 자동으로 관련 문제 및 시각 자료를 준비해주는 '생성형 AI'를 내놓고 있기도 한다. 교육부 역시 작년부터 이와 유사한 'AI 디지털교과서'를 적극 개발중이다.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수업시간에 활용되는지 살펴보면 교사는 AI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게 과제를 모두 다르게 내줄 수 있다.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며 바로 자신의 결과물을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며, 평가 역시 개개인의 성취 수준에 맞게 실시된다. 이러한 결과는 누적되고, AI는 이를 학습해 개개인에게 더욱 알맞은 자료 및 교육을 제공해줄 것이다. 물론 가정과 연계해 지도할 수도 있다. 교사 1명이 수행하기에는 힘들었던 일대일의 개별화 교육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미래를 생각해보자. 누구든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고, 손쉽게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계획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신속한 환류를 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개개인이 스스로 독창적인 인재가 되는 현장을, 그리고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현장을. 이러한 교육의 질적 성장은 곧,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 교육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의 양극화를 겪지 않고 재미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면, 아이들 낳아 기르는것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교육자들이 추구해야 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백년지대계일 것이다.

기 고

의료분쟁의 해법(解法)을 제안한다

정 영 수
(재)한국산업교육원 광주지부장
경영학박사

우리나라가 선진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치료도 못받고 사망을 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지방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등 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수 많은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추진을 했지만 의사와 전공의들의 파업과 맞물려 코로나펜데믹이라는 의료 위기속에 물러 설 수 밖에 없었다.

기존 의대 정원인 3천58명은 의료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데다, 지방의료체계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사 수 증가는 필수적인 여건이 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자 최근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 한달 넘게 의료공백이 생기는 등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책무이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으로 어떤 이유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의료는 정치투쟁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완치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중증환자, 응급환자 분들에게 의사들은 가장 필요한 구세주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만약에 부모가 그런 중병으로 수술를 받기 위해서 대기중에 있는데 과연 병원을 떠날 수 있겠는가? 의사가 환자 등돌리는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징계에 반발해 일반 의대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자 '제자 보호'라는 취지를 들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의료계는 전국 의대 중 19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기로 결정했으며, 얼마전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참여한 16개 의대 교수들은 2차 비대위 총회에서 사직을 결의를 했다.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의사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에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도 의협과 이제 다시 한번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사회현상인데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가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갈등상황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프레임과 방식만 고집하면 갈등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타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서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야 한다.

갈등상황에서 상대를 소통 대상이 아닌 청산 대상,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이제는 민주사회에 맞는 새로운 갈등해결 방법을 모색해 불쌍한 환자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독자투고

학교·사망(學校·賜望)

죽음은 슬픈 일이다. 직업 특성상 타인의 주검을 목도하게 되면 고인의 명복을 위해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까울 때도 많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무겁다. 사망과 관련된 학교폭력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망과 관련된 학교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는 辭令(말씀 사, 서슬 망)이다. 예리한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아닐까. 칼은 사람의 마음을 벨 수는 없지만, 말은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신체폭력(17.3%)보다 언어폭력(37.1%)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어폭력으로 멍들어가는 마음의 상처를 살피지 못하고 피해를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것은 피해자를 사망(辭鋩)시켜 사망(死亡)의 길로 내모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思亡(생각 사, 망할 망)이다.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난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는 하나, 정신이 피폐해지면 아무리 건강한 신체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언급하는 사망(思亡)은 첫 번째로 언급한 사망(辭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라는 표현으로 함축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을 빈정거리며 무시하는 무언의 행동과 표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를 수도 있다. 의도적인 무관심인 무시는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존재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는 적극적인 폭력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는 嗣忘(이을 사, 잊을 망)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또래집단의 관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하지만 서로를 이어주는 관계 속에서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잊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리가 소위 '집단따돌림'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SNS의 관심과 활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이버 따돌림 등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앞서 언급한 불미스러운 사망이 아닌 賜望(줄 사, 바랄 망)이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길 염원한다. 경험은 했지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심리상태에서 학교폭력의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오롯이 추앙할 수 있는 '찐친'을 찾길 청소년에게 애원한다. 〈박은섭·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커지는 전남 농어촌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취약지 전남의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된 때문으로 도내 5개 보건소와 34개 보건지소엔 단 한 명도 없이 비었다.

연이은 3차병원의 진료 차질에 전남 공보의는 지난 4일 1명, 11일 22명, 25일 22명 등 총 45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리를 옮겼다. 보건소 10명, 보건지소 35명으로 전문의 7명, 일반의 38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강화 의지에 따라 유연한 대화 분위기로 돌아섰었다. 하지만 정부가 5월 안에 '2천명 증원'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사직서를 속속 제출하고 '52시간 준수' 준법 투쟁 등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전남대·조선대병원의 수술 및 외래 진료 차질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 주민들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통상 보건소에는 2-3명, 보건지소에는 1명의 공보의가 근무한다. 하지만 당초 1명 밖에 배정되지 않았던 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 등 5개 군 보건소마저 공보의가 없는 상태다.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공보의 지원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파견자까지 이어져 엎친데 덮친격이다. 실제로 지난해 45개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했었다. 인근 지역 공보의 순회 진료 실시와 외과 공보의 휴가 제한 등도 정부와 의료계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보호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주민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상 언제든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병원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널뛰기 기온에 감기·코로나 환자 급증한다니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등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흐리다가 맑고, 종종 비가 내리는 등 종잡을 수 없다. 환절기,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 위생에 주의가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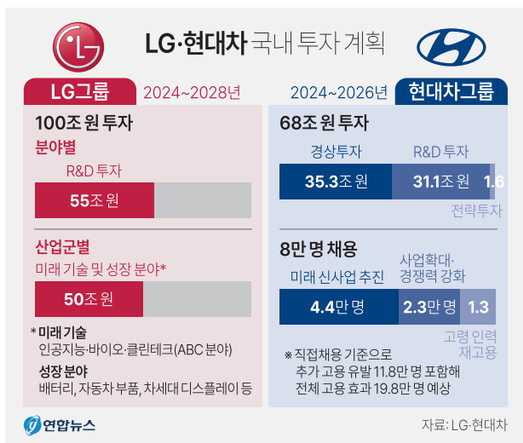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16일(2024년 11주차)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 수(의사환자 분율)는 15.1명으로 나타났다. 전주인 2024년 10주차(3월3-9일) 12.8명보다 상승한 것으로, 그 전주인 9주차(2월25-3월2일) 14.8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양성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9주차 4천562명, 10주차 4천702명, 11주차 5천51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에서도 기침과 콧물, 고열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기관지가 예민한 경우 미세먼지와 꽃가루 알레르기 등에 따른 비염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병원마다 진료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다. 긴 대기줄도 생겨나는 상황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엔 일교차로 인한 감기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 유독이 심한 편이다. 보건 당국은 환절기 감기는 물론 코로나와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발 씻기 등 등 개인위생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잘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로 계절 뿐 아니라 개인의 면역력, 연령,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고령층의 경우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예방이 최선이다. 적절한 온도 20도에서 22도이며, 습도는 50-60%를 유지하는 게 좋다. 사람과의 신체 접촉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체력을 키워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감기를 쉽게 여겨선 안 된다. 몇개월을 고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적극 치료해야 하며, 코로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기온이 밤낮으로 널뛰기하고 있다. 불편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시기다.

그래픽 뉴스

현대차 68조·LG 100조 국내 투자 보따리



현대차그룹과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잇달아 대규모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고 미래 신사업 발굴과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국내에 68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연평균 투자규모는 약 2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17조5천억원)와 비교해 30%가량 늘어난다. 이중 31조1천억원은 R&D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배터리 기술 내재화 체계 구축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전체 투자액의 46%를 R&D 분야에 집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국내에서 8만명을 직접 채용한다. 이중 미래 신사업 추진 분야에서만 절반이 넘는 4만4천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LG그룹도 이날 ㈜LG 주주총회에서 오는 2028년까지 국내에 약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LG는 특히 이중 절반을 구광모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투자 재원의 약 55%는 R&D에 투입, 국내를 핵심소재 연구개발과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 핵심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AI 시장 확대 등으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혁신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